

고규홍의 ‘나무 생각’



겨울 숲

겨울 숲은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빗길도 향기도, 생명의 기미조차 느끼기 어렵다. 간간히 찾아오는 새들의 지저귀음을 배경음악과 삼아 걸으며 사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땅 위의 침묵과 달리 땅 밑에는 필경 봄을 채비하는 꿈틀거림이 있다. 봄 마중을 위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새 활동을 채비해야만 한다. 고요에 묻힌 숲은 그래서 생명의 흐름과 이유를 짚어 보기에 ‘알맛좋은’ 공간이다.

침묵의 숲에서 뜻밖에 꽃을 만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동백나무의 빨간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즈음이다. 겨울에 꽃을 피운다 해서 겨울 ‘동’(冬) 자가 붙은 동백나무는 12월이면 이미 꽃을 피운다. 물론 중부 지방의 동백나무는 이른 봄이나 돼야 꽃을 피우지만, 옛 사람들의 동백나무는 한겨울에 꽃을 피운다.

매화도 그렇다. 눈 속에 피어난다는 뜻에서 설중매(雪中梅)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다. 매화 역시 이른 봄에 더 많이 피어나는 꽃이지만, 옛 사람들에게는 겨울에 피어나는 꽃의 상징이었다.

옛 사람들은 겨울에 피어나는 대표적인 꽃으로 매화를 떠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매화와 생물학적 친연 관계가 없으면서도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이유에서 매화라는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될 12월쯤부터 꽃을 피우는 특별한 나무다. 12월을 뜻하는 선달 ‘납’(臘)자에 매화의 ‘매’(梅)를 합해서 ‘납매’라고 부르는 나무가 그 나무다. 중국이 고향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흔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식물원이나 수목원 공원 등에서 조경수로 많이 심어 키우기에 이제는 그 리 생경하지 않은 식물이 됐다. 여러 언론에서 겨울에 피는 꽃의 상징으로 앞다퉈 소개하는 대표적인 나무다.

나무를 관찰하고 감상하는 방법이 나무마다 달라야 하겠지만, 납매의 꽃을 감상하는 법은 더욱 남달라야 한다. 납매의 꽃은 눈 이외의 감각 특히 후각을 이용해야 더 잘 느낄 수 있다. 향기가 좋고 강하다는 이야기다. 여느 꽃에 비해 향기가 강한 탓에 눈으로 살펴보기 않아도 꽃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납매 꽃의 생김새는 미적으로 탁월한 편은 아니다. 가지 위에 노란 빛으로 핀 납매의 꽃잎은 밀랍을 바른 듯 매끈하지만, 빛깔이 둔탁하다. 1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꽃송이에 둘러서 돌아난 여러 장의 꽃잎은 땅을 향해 늘어진다. 추위에 한껏

움츠렸거나 혹은 추위를 견디느라 지친 듯한 모습이다. 꽃송이 안쪽에 짙은 자주색이 배어 있지만, 그나마 늘어진 꽃잎에 가려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빗길이나 생김새에서 매혹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꽃이다.

그러나 바닐라 향을 담은 달콤한 향기만 큼은 여느 꽃향기 못지않다. 멀리까지 퍼지는 강한 향기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인다 고 말해도 될 듯하다. 놀랍고 신비롭다. 꽃향기는 납매가 오랜 세월 동안 겨울에 꽃을 피우며 살아온 생존 전략의 결과다.

꽃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꽃가루받이를 이루기 위해서 납매는 곤충을 불러들이려 한다. 벌·나비와 같은 매개 곤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진 겨울에 나무는 향기를 멀리 퍼뜨려 어디엔가 있을 곤충을 유혹해야 한다. 근처에 찾아올 곤충이 적을수록 더 멀리까지 향기를 퍼뜨려야 한다. 필경 어디엔가 있을 누군가에게 향기가 닿아야 한다. 추위가 더할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까닭이다.

강한 향기만으로 마음을 놓을 건 아니다. 오래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 바람과 눈보라를 거뜬히 이겨 낼 만큼 강해야 한다. 다른 계절의 꽃들이 고작해야 열을

남짓 피어 있는 것과 달리 납매의 꽃은 이듬해 2월쯤까지 무려 백일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꽃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꽃가루받이의 그 한순간을 수국이 기다린다. 질박한 겉모습 안에 감춰진 강인함이다. 준엄한 생명의 규칙이다.

납매만 그런 건 아니다. 겨울에 피는 개개의 꽃은 향기가 강하거나 빛깔이 화려하다. 동백꽃이 그렇고, 매화가 그러하다. 엄혹한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하는 나무의 생존법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를 이루기 위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적응해야 한다. 혹독할수록 화려해야 하고, 엄혹할수록 강인해야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새해다. 우리의 겨울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새 시대를 맞이할 즈음이다. 봄이 오는 길목임은 분명하지만, 불쑥불쑥 불어닥치는 기습적인 강추위의 폭력에 대비해야 한다. 겨울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다. 너무 일찍 찾아온 봄이라면 더 그렇다. 나무처럼 더 강해져야 한다. 아직 겨울, 고요의 겨울 숲을 거닐며 한 그루 나무에서 길어 올린 생각 한 조각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커피 원장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넬 모래먼 설, 아파트 단지의 눈썹인 하말라야이다 꼭대기에 통통한 까치 한 마리가 짝어 대는 기분좋은 아침이다. 연휴의 시작을 앞둔 즐거움,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조금 여유로워지는 이 시간에 커피한잔씩 하시며 어제 오늘 벌어지는 시끄러운 사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자.

초현실주의 현대 화가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란 인물이 있다. 아일랜드사람이다. 16세기 철학자 베이컨과 이름이 같다. 1945년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위한 습작’으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화가다. 신체의 왜곡, 공포, 폭력, 분노, 타락 등 악몽적인 이미지들을 묘사한 독창적인 유희작품으로 유명하다.

수많은 그의 그림 중에 나의 맘속에 찍혀있는 작품은 ‘교황 레오10세의 용변’이다.(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했지만) 새로 2

교황 레오10세의 용변

미터 크기의 이 그림은 보는 순간 “이런 수가!”하는 충격을 준다. 진한 청색조의 화면 한가운데 변기 위에 걸터앉아 입을 벌리고 표정을 일그러뜨리고있는 교황. 그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진홍색 교황법복 대신 암청색의 의상과 회색 청색이 뒤범벅된 관모를 쓴 교황은 화면에서 저절로 고통을 질러댄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그림은 1954년 그가 기록 도하나의 그림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의 후속작이다. 그 그림은 유명한 궁정화가 벨라스케츠의 동명 초상화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 역시 교황의 모습을 인자함과 권위 대신 고통스런 절규의 표정으로 바꿔놓은 충격적 작품이었다. 이 그림은 2012년 소더비 경매에서 2천500만달러(290억원)에 팔렸다.

심미주의는 모든 예술장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휴식과 미적 충만감을 준다. 그러나 현대회화가 심미주의에만 머물러있지 않는다는 건 중학생들도 안다. 고발과 풍자 조롱은 그 흔한 주제다.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혼란스럽게, 심지어 고통스럽게 하기까지 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나름의 생명력을 갖고 상하이와 뉴욕과 도쿄와 베를린에서 제작되고 전시된다. 그중 상당수 작품은 “문제작, 화제작, 천재성이 빛나는 도발”로 주목을 받지만, 그보다 많은 작품들이

“쓰레기, 배설물, 역겨운 장난질”로 비난받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된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청장 출신 모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그림전시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누드화에 합성한 그림이 전시됐대서 시끄럽다. 마네의 누드작품 ‘올랭피아’에 박의 잡든 얼굴을 갖다 붙이고 침대 곁의 흑인 노예 얼굴에 최순실을 갖다 붙이고 벽면에는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제목이 ‘더러운 잠’인걸로 보아 작가는 박대통령이 최순실에 귀와 눈이 가리운 채 잠만 자느라 세월호 사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좌파 참여주의 화가의 입장을 변명할 생각은 결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이 국회에 걸렸대서 인격살인이다, 여성비하다,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는 식의 과잉반응을 하는 건 곤란하다. 이 전시는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들인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의 전시다. 그들이 전시를 통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 하는 문제는 온전히 전시된 작품들의 작품성에 맡겨둘 일이다. “그래 맞아”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쓰레기, 배설물, 역겨운 장난질”로 매도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의 작품은 씩 웃고 지나칠 정도의 수준이지 당 원내대표가 사과

를 하고 전시회를 연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할 정도의 대형사고는 아니란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화가 홍성담의 작품에서 이미 논란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가장 뜨거운 박근혜출산그림은 박대통령이 산부인과 수술대에 앉아 막 출산을 마치고 의사는 검은 ‘라 이방’을 낀 갓난아기를 거꾸로 들고 있으며 간호사들 중 한명이 거수경례를 부치는 구성이다. ‘세월 오월’은 지푸라기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의 조종을 받으면서 봉기하는 군중들을 향해 대드는 화면이다. 최근작 ‘동의 탄생’은 복악산 꼭대기에 앉아 불기를 끄고 배설하는 최순실과 굶은 인분가닥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림이다. 작품화면에 주는 역겨움이나 충격으로 보면 홍성담의 그림은 역대급이다.

정치들, 사회를 향한 예술가들의 조롱은 건강한 사회의 표식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예술성으로 무장해 발표되기를 바랄 뿐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경외의 대상인 건 그 예술성 때문이다. 미운 친구를 욕하고 싶어 조동학교 시멘트벽에 조악한 선그림을 분필로 그리고 그림에 ‘철수×지’라고 써놓은 걸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 고

감염병 켈린더를 아시나요?



김 은 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한겨울에도 장염에 걸려 고생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아울러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한 데이터에서도 감염성 장염환자가 여름보다 겨울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처럼 감염병을 검사하는 기관의 업무 환경을 봐도 그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겨울철엔 대체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동안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한가한 시간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으레 나타나는 감염병들이 켈린더를 한 장 한 장 넘겨가고 있는 느낌이다.

겨울(1~2월)에는 낮은 온도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들이 많은 시기이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은 1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

해 1월에 절정에 이르는데, 일단 감염되면 38℃를 넘는 발열과 함께 기침, 근육통과 인후통을 동반하는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백신을 맞은 후 2주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행하기 전에 미리 맞는 것이 요령이다.

봄(3~5월)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풀밭에 앉거나 눕는 것은 금물이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를 옮기는 참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이므로 항상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수두와 성홍열, 중고등학생에게엔 유행성 이하선염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두는 발진이 주로 몸통과 얼굴에 발생하여 수포를 형성하며, 성홍열은 발열, 발진과 딸기모양의 허가 특징적이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불이 부어오르고 발열, 두통이 오는데, 세 질환 모두 환자와 접촉했을 때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됐을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환자라면 주변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를 쉬는 것이 좋으며, 성홍열을 제외하면 백신이 개발돼 있으므로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다.

여름(6~8월)에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세균성 장염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며 지난해에 발생한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던 콜레라도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하다. 주로 물과 상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특히 해산물 생식을 금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뇌염, 지카, 뎅기열 등은 모두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열성 질환이며, 특히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에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고,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백신이 개발돼 있으므로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감염병으로는 레지오넬라증과 바이러스성뇌수막염이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여름철 감기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고열, 기침,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냉각탑수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가을(9~11월)엔 쯔쯔가무시와 렘도스피라, 신증후출혈열 등 발열성 질환이 우려되는데 모두 진드기와 들쥐를 통해 전파된다. 쯔쯔가무시는 틸딩스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야외활동 이후 감기 유사 증상이 있고 특히 가피(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가 있을 때는 즉시 의뢰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렘도스피라는 대체로 초기에는 가벼운 독감 증상을 보이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황달, 신부전, 출혈 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등들의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는데 발열, 출혈, 신부전이 3대 주요 증상이다. 쯔쯔가무시와 렘도스피라와는 달리 백신이 개발돼 있으므로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 이들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휴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또 겨울(12월)에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10마리만 섭취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염된 물이나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에 환자가 있는 경우 손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아울러 영·유아에서는 발열과 구토 그리고 수양성 설사증상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므로 물과 음식을 잘 끓여 먹어야 한다.

이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손을 잘 씻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유비무환의 마음으로时时때때에측근는 감염병에 잘 대처해서 우리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社 說

설은 다가오는데 일하고 돈도 못 받아서야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선물 보따리는커녕 빈손으로 고향을 찾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 같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광주·전남에 만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밀린 월급도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 설 보너스는 꿈꾸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총 735억 원(근로자 1만9642명)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체불액은 48억 원(7.1%), 근로자 수는 3811명(23.6%)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253억 원, 전남 482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8억 원(46.1%), 건설업 180억 원(24.6%)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체불임금의 70%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체불액은 전년 대비 28억 원(18.7%) 늘었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도

소매·음식·숙박업도 각각 16억 원(5.8%)과 12억 원(21.7%) 늘었다. 특히 전남은 제조업에서 267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전년보다 107억 원이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느슨한 사회안전망을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기업주도 부지기수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는 물론 근로자의 삶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다. 때문에 명절 때만 이뤄지는 반쪽 단속과 체불 업체 명단 공개, 100~200만 원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소환된 최순실 억울하다니 정말 어이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어제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되던 최순실 씨가 느닷없이 취재진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통을 질렀다. 이는 지난해 첫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여섯 번의 특검 소환 거부 끝에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체포된 최 씨는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러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는 등의 말을 목청껏 외쳐 취재진들로 하여금 어안이 빙빙하게 만들었다.

최 씨는 호송차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약 20~30m를 걸으면서 한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서서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모습은 거의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졌다.

이 같은 최 씨의 모습은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모습과는 상반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각종 국정 농단 행위며 고통을 질렀다. 이는 지난해 첫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민은 이날 최 씨의 행동을 보고 또 다시 분노했을 것이다. 최 씨가 고향을 계속 질러릴 때 옆에서 지켜보던 청소년 아저머니가 낮게 중얼거린 몇 마디 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염병나네.” 아저머니는 이 말을 세 번이 나 반복했다.

특검 측은 최 씨의 이 같은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근거 없는 트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역사의 죄인이다. 하지만 그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과 닮았을 것 같다.

無 等 鼓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귀인이 입성하여 나를 도와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올바른 행동에 귀인의 원조가 가세되니 모든 것이 열려 가리라.”

지난해 원승이가 바꾼 신년 운세였다. 점쟁이 원승이는 지난해 광주 신세게 걸러리가 원승이해를 맞아 개최한 ‘헬로우 미스터 몽키전’에서 만났다. 그는 손봉채 작가의 설치 작품 속 주인공이었다. 이 점괘가 통했는지 지난해 ‘귀인’을 만났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듯해 행복했다.

신년 전시회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난 터라, 올해도 그 기

세화전

지역 곳곳에서 세운을 이어 가고 싶어 신세계 갤러리 세화전(‘어둠 속에서 만물의 영혼을 일깨우다’·2월 20일까지)에 다녀왔다. 정유년 ‘닭의 해’이니 작품 속 주인공들은 당연히 ‘닭’이다. 국경 파탄을 야기한 현직 대통령 때문에 ‘참으로 억울했을’ 닭이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송영학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꿈’ 속 눈 큰 병아리는 당차 보인다. 정순휘 작가의 ‘미명’ 속 고고한 닭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곧 찬란한 해가 뜰 것 같기도 하다. 치킨 광고 전단

이라 소개하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세운을 이어 가고 싶어 신세계 갤러리 세화전(‘어둠 속에서 만물의 영혼을 일깨우다’·2월 4일까지) 전시도 흥미롭다. 또 40명의 작가가 참여한 광주시립미술관 ‘꼬끼오~’(2월 19일까지) 전시와 조선대 미술관 ‘정유년 세화전’(2월 4일까지)에서도 다양한 세화를 만날 수 있다.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올 한 해 모든 일 잘 이루어지라는 작은 ‘응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 한 해를 여는 근사한 선물이다. 당신에게 드리는,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